

## 삼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

3/25 월요일

아침의 누림**롬 15:13**

13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15:11**

11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6:24**

24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빌 3:1**

1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서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빌 4:4-7**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살전 5:16-18**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

로마서 15 장 13 절은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누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리다면 평안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신다. ... 요한복음 15 장 11 절 이전 절들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함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다(1-11 절). 우리가 신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기쁨의 문제, 곧 기쁨이 가득한 생활의 문제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 드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쁨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서 오며, 그분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서 오고, 아버지께서 표현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에서 온다. 바로 이러한 생활에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 기쁨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10, 146-147 쪽; 4 권, 그리스도, 메시지 53, 5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7 장 13 절에서 주 예수님은 믿는 이들 안에서 그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그분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충만한 기쁨은 참된 하나 안에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함께 누릴 때, 우리 속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가 될 때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찬양은 내적 기쁨의 넘쳐흐름이다.

빌립보서 3 장 1 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서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당부한다. 그의 말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의 보호이고 보장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그 당시 빌립보에는 보호 즉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상황은 유대교도들이 일으킨 어려움이였다. 그러한 어려움에서 지켜 주는 안전장치로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격려했던 것이다.

빌립보서 4 장 4 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모든 믿는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필요가 있다. ... 이렇게 기뻐할 때, 우리는 빌립보서 4 장 2 절과 3 절에 언급된 하나가 되는 힘을 얻게 된다. 믿는 이들이 같은 것을 생각하려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기뻐하기를 배워야 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또한 빌립보서 4 장 5 절부터 9 절까지에 나열된 탁월한 특성들을 갖는 비결이다. 이 절들에서 발견되는 미덕들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4 권, 그리스도, 메시지 53, 59-61 쪽)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기쁨이 없을 때가 많다. 때로는 그들이 농담을 던지고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돈을 벌거나 승진하면 기뻐하지만, 적막한 순간이 오면 그들은 기쁘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상 집회에서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 집회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슬프시고 기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엡 4:30).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을 배우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안에 거하도록 허락해 드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계명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59년, 1권, 영문판, 37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4권, 그리스도, 메시지 53; 6권, 그 영, 메시지 83; 23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82

### 3/26 화요일

#### 아침의 누림

##### 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 갈 5:22

22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 요 17:13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행 13:52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 갈 5:22

22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 고후 1:24

24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 빌 1:25

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 빌 2:17-18

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18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

로마서 14 장 17 절은 교회생활의 실재인 하나님의 왕국이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6 절은 믿는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 장 22 절은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사람에게에는 기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할 때 기쁨을 갖게 된다. 사랑은

생명에서 나오고, 기쁨은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영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기쁨의 영이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쁨은 그 영께 속한 것이다. ... 우리가 그 영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6 권, 그 영, 메시지 83,65-66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기는 생활은 바로 왕국 생활이다. 왕국 생활은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으로 구성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의롭고 올바르다면, 우리는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 살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과, 그 결과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회생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까지에서 천국 백성의 본성(5:1-12)에 관하여 천국 헌법을 반포하실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끝마치셨다. 이것은 기쁨이 우리가 왕국의 실재 안에 사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임을 말해 준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유쾌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인이시며,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분이시다. 만일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고 그 영을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그 영께서 주시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진리 공과, 개정판, 2 단계, 4 권, 43 과, 85-86 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달콤한 한 가지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친밀한 관계를 볼 수 있다.

시편 23 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목자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목자보다 더욱 친밀한 분이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목자이시라면, 그분은 외적으로만 우리를 돌보고 목양하실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시거나 우리가 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힘과 음식과 생수가 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 이들은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의 누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속존재에 도달하는 다양한 공급으로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우리 영의 필요들을 충족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 안에서부터 우리의 정신인 혼의 필요도 충족하실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우리 신체의 필요도 채우실 수 있다. 비록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만질 수도 없으며 손에 닿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 이들은 그들이 자신의 영과 혼과 심지어 몸

안에서 그분을 누린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가!(하나님을 누리는 길, 1 장, 6-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2 단계, 4 권, 43 과

3/27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창 2:9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 요 1:16-17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 렘 15:16

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 요 1:14, 16-17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총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창 2:7, 9

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

성경에는 처음으로 언급된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원칙이 존재한다. 그 원칙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말씀 전체에 걸쳐 그 문제를 통제하는 일관된 원칙을 세운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언급된 방식이 그 이후에 유사한 문제가 언급될 때 그것의 의미를 결정한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하여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음식으로 사람에게 제시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임을 보여준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도록 하셨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상징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누림이 되기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최초의 생각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고, 사람이 먹고 마셔야 했던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 2 장, 21-22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땅에 계실 때 주 예수님은 거듭해서 그분 자신께서 사람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음식이심을 계시하셨다.

주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오천 명을 먹이시고도 많은 음식이 남았다. 이 일을 목격 한 후에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돌봐 주실 위대한 신언자이시라고 생각했다. ...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고, 따라서 주님은 그들의 관념을 전환하기 위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 즉 영원한 가치가 없는 양식을 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다. 그분은 사람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썩지 않는 양식을 주려고 오셨다. ...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양식이시라고 말씀하셨다. 즉 주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의 누림을 위한 양식으로 주기 원하셨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를 단지 기적을 행하는 주권자인 주님으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나는 그저 외적인 것들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온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살을 여러분을 위한 양식으로 주고 내 피를 여러분이 마실 음료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먹고 마신다면, 나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경배해야 한다.”라거나 “너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와 달리,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담아, 이곳으로 와서 다만 누려라. 나는 생명나무이며, 나는 네가 나를 누리도록 여기에 있다. ... 나는 네가 나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섬기거나 경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너에게 양식으로 주고 싶을 뿐이다. 나의 유일한 바람은 내가 나를 누리는 것이다.”

어느 날 생명나무가 왔다. 이 생명나무는 육체가 되신 말씀, 즉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말씀, 은혜와 실재가 총만한 말씀이었다(요 1:14). 그분께서 다시 한번 사람 앞에 놓인 생명나무로 오심으로, 사람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복음서에서 사람들은 그분께 와서 그들이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지와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여쭙어보았다(마 19:16, 22:36). 그들이 여쭙어본 것은 이런 것들뿐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 나는 여러분이 나를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나무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요 10:10). 나는 에덴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 나는 나 자신을 여러분 안으로 분배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의도는 단지 여러분이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하나님을 누리는 길, 2 장, 22-2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4 권,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생명과 길, 5 장*

### 3/28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요 6:57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 고전 10:4

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 느 8:8-10

8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뜻을 밝혀 주었기 때문에 백성은 읽어 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9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의 이해를 도운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다.

10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몹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벤전 1:8**

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님은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나를 기념하십시오. …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시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 (고전 11:24-25)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단지 자신의 생각 안에서 묵상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기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내적인 만족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와 더 많이 연합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참되게 기념하는 것이다.

또한 떡 떼는 것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의미와 일치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시도록 해 드리기 위해 날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활이다. 우리는 한 주의 첫날 떡 떼는 집회에 올 때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이들로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산다.(새 신자 레슨(상), 11 과, 241-2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념을 바꾸어야 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게 하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은 그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에 있지 않고, 그분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에 있다. … 우리는 반드시 이 비결을 배워야 한다. …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내적 존재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자신에게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그분을 누리고 흡수하는 것을 배우고, 모든 것 심지어 자녀의 질병에 관해서도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주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 여러분이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수록, 그분은 더욱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더 고집할수록, 그분은 마침내 ‘나사로’가 죽고 장사되어 약취가 나기까지 더 오래 기다리신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그분의 의도는 결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흡수하고 누리기를 배우는 것이다.

마르다는 항상 주님을 위해 분주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흡수하는 법을 몰랐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춰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일에 몰입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삼십 분을 기도하든 십 분을 기도하든, 주님을 흡수하고 누려야 한다. 우리는 만족할 때까지 주님을 먹어야 한다. 아이가 아프더라도 그 상황에 너무 영향받지 말라. 어려운 상황도 그대로 두라. 무거운 짐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두라.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거뜰거뜰 단순하게 주님을 누리고 흡수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날 것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영광이겠는가!

어떤 장로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28 지역 집회소를 떠올릴 때 그들은 고개를 젓는다. … 그들은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바라보고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그들이 주님을 먹고 그분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날 것이다. 그들이 저녁에 28 지역 집회소를 방문할 때,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장로 형제님의 얼굴 빛이 변했습니다. 그 형제님의 얼굴에 더 이상 슬픈 기색이 없고 오히려 빛이 납니다. 그 형제님이 일어나 말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표현되었습니다.” …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하나님을 누리는 길, 2 장, 34-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직장인 성도들을 위하여, 7 장

3/29 금요일

**아침의 누림****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우며,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눅 1:46-47**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잠 29:18**

18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행 26:19**

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시 46:4-5**

4 강이 하나 있어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성을, 가장  
높으신 분의 장막의 거룩한 곳을 즐겁게 한다네.  
5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성이  
요동하지 않으리. 하나님은 새벽녘에 그 성을  
도우신다네.

**시 36:7-9**

7 오, 하나님! 주님의 자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러하기에 사람의 아들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합니다.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앞장서야  
한다. ... 누가복음 1 장 46 절과 47 절은 주님께  
대한 누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앞장서야 한다. 먼저 마리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했으며, 그런 다음  
그녀의 혼이 주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찬양은 그녀의 영에서 흘러나와 그녀의  
혼을 통해 표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대체로 혼을 먼저 사용한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배워서, 혼이 우리의 영을 따르게  
해야 한다.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영이

혼을 굴복시켜 영을 따르게 해야 한다.(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17 장, 231-23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 장 12 절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에서 가나안의  
좋은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당된 몫이었듯이,  
그리스도는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할당된 하늘에 속한 좋은 땅, 곧 우리의 하늘에 속한  
몫이신 그분께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문제를 보기 위해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인 후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고 성경에서 주님께 관한 많은 교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믿는 이가 주님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해 주님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 신실하고 정상적이며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매들이 자녀들을 키울때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아니다. 자매가  
자녀를 낳은 후에, 그녀의 주된 초점은 다름 아닌  
자녀를 먹이는 것이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물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먹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사람들은 먹이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약한 이유는 그들에게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양실조의  
상태, 즉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차고 넘치는 지식이 있지만  
생명의 성장은 거의 없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믿는 이들을 향한 비평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오는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부부가 서로 다투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아내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교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생활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과 ‘병균들’이 삼켜지고, 온갖 긍정적인  
요소들과 영적인 비타민들의 결핍이 채워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멈춘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는 많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일의 영양 공급이시며,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먹으며 그분께 참여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영을  
훈련함으로 교회생활을 실행함, 8 장, 291-2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6; 진리 공과, 개정판, 3 단계, 4 권,  
55 과; 2 단계, 3 권, 32 과*

3/30 토요일

아침의 누림**벧전 1:8**

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빌 4:11**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골 1:12-13, 27**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 2:9, 16-17**

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16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룻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골 3:1, 4, 11**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마 28:20) 감추어지고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밝히 나타나실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공개적으로 볼 것이다.

비록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한다. 현재 우리는 그분을 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는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곧 살아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으로 주입된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갈 3:2).

베드로전서 1 장 8 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 기쁨은 영광이신 주님 안에 잠겨 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주님의 표현으로 가득하다. 이 기쁨은 또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큰 기쁨을 얻는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3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82, 214-2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14 장 17 절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의는 우리자신을 향한 것이고, 화평은 다른 이들을 향한 것이며, 기쁨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우리는 영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 나무랄 데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제로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가마'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다(단 3:19-20, 25). 그들은 이글거리는 불가마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기쁨이 가득하였다.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이 비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은 반드시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다면,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처한 환경은 끔찍했지만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다(행 16:23-25). 그들의 느낌에 따르면, 그들은 감옥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들에게 감옥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그분 안에 갇혀 있었다(엡 4:1). 그러므로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불타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며,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고,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낯은 느낌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줄 것이다.

우리가 새롭고 신선하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에 두며, 영 안에서 불타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몫으로 누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며,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다.

... 로마서 12 장부터 16 장까지에 언급된 모든 항목들이 영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될 것이다. 불타고 기쁨이 가득한 영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모든 항목들을 얻는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6 년, 2 권, 서신서들에 있는 사람의 영과 함께하시는 신성한 영, 3 장, 411-412 쪽)

오늘날 많은 연장한 성도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 특별히 우리는 집회에서 연장한 많은 성도들이 미소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본다. 그들 안에 있는 실재가 밖으로 나타난다. 결코 늙지 않는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 이 생명이 그들에게서 표현될 때, 그것은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바깥 환경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시다. 찬송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을 위해 증언할 때 더욱 기쁨이 가득하다. 우리가 입을 열수록, 우리는 더 기쁨으로 가득해진다. 심지어 “아멘!” 이나 “할렐루야!”라고 말하기만 해도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나고 광채가 나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성전의 재건을 위해 뒤처지지 않음, 1 장, 12-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3단계, 4권, 55과; 2단계,  
3권, 32과

**3/31 주일**

아침의 누림

시 16:1-11

- 1 오, 하나님!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 2 제가 여호와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저의 주님이시니 주님 외에는 제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 3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뛰어난 이들이니 저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 4 다른 신들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슬픔이 더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전제물을 바치지 않겠고 그 이름조차 제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 5 여호와는 저의 유업과 잔의 몫이시니 주님께서 저의 소득을 지켜 주십니다.
- 6 제게 측량줄로 재어 주신 땅은 즐거운 곳에 있으니 그 유업이 제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 7 제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참으로 밤마다 저의 숙부분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 8 제가 항상 제 앞에 여호와를 모시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9 그러하기에 제 마음이 기뻐하고 제 영광이 크게 기뻐하며 제 육체도 안전하게 거주합니다.
- 10 주님은 제 혼을 스울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께서 구덩이를 보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 11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저에게 알려 주시리니 주님의 임재 안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송: 477 (英) 베들레헴에 주님 (中:366)**

- 1 오 우리 항상 주 안에 기뻐해 흥악함 우릴 에워싸나  
파도같이 환난이 밀려오나- 찬송이 한숨보다 더 낫네
- (후렴)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세 찬송함이 탄식보다 낫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네 우리 항상 기뻐하세.
- 2 오 우리 항상 주 안에 기뻐해 어두움 우릴 에워싸나  
저 사탄이 여전히 위협해도- 찬송이 애통함보다 낫네
- 3 오 우리 항상 주 안에 기뻐해 병중에 우리 쇠잔해도  
주의 기쁨 곧 우리 힘이 되니- 주님을 의지해 강해지네